

성서 주석과 번역¹⁾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경철*

1. 바울이 가르치는 “번역”의 중요성

“은사”에 관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맥락에서 바울은 “번역”에 관하여 말한다. 물론 성서의 번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방언과 밀접한 맥락에서 “통역”(ἑρμηνεία)에 대해서 말한다(고전 12:10, 30; 14:27-28).²⁾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14:13-14). 방언은 “나의 영”이 하는 기도일 수는 있지만,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한다.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방언을 들어도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내 인격의 중심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³⁾ 바울은 교회에서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다섯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14:19). 하나님의 영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파악될 수 없으면,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번역은 성육신의 반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방언을 번역해야 할 원천 언어라고 바꾸어 생각해보자. 통역되지 않는 방언이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성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서가 번역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언에 불과하다. 성서는 번역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서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1) 이 글은 2009년 2월 12일 대한성서공회에서 있었던 성서번역워크숍에서 발표한 것을 축약 정리한 것이다. 축약되지 않은 원고는 워크숍의 자료집에서 볼 수 있다.

2)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해석학에 대해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H. Weder, *Neutestamentliche Hermeneutik*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6), 30-42 참조. 참고문헌은 저자의 이름과 작품의 핵심 주제어로만 인용하고, 전체 서지 사항은 첨부한 도서목록에서 제시한다.

3) H. Weder, *Neutestamentliche Hermeneutik*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6), 32.

번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번역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강요된 과제이다. 번역은 해석학이다. 그런 점에서 번역은 해석학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작업이고, 그래서 읽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이다. 이런 번역의 작업은 단순히 언어 지식이나 번역의 기술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번역을 위한 바울의 가르침은 한 걸음 더 나간다.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대조한다. 방언이란 그것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비밀리에 하는 기도이지만,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건이다(14:23-25).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예언이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의 상황을 분명히 들추어내서 마음의 감추어진 것까지도 깨우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듣고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반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므로 번역은 방언을 예언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번역을 위해서는 단순히 언어의 재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폭 넓은 해석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현대 번역이론으로 말한다면, 원전(방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까지도 고려하는 해석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그럴 때 번역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14:5-11). 성서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번역되지 않는 성서는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실천할 수 없게 한다(14:8). 그러므로 방언의 통역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야만을 극복하는 은사이듯이, 성서의 번역은 성서와 인간 사이의 야만을 극복한다(14:11). 성서의 번역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촉진시켜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한다(14:16, 25). 번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야만의 벽을 허문다. 그러므로 번역은 지고한 사랑의 행위이다(14:1).⁴⁾

2. 주석⁵⁾과 번역

번역은 읽히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 의미를 바르

4) H. Weder, *Neutestamentliche Hermeneutik*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6), 37-39 참조.

5) 여기서 우리는 주석(exegesis)과 해석(interpretation)을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는다.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모든 과정을 주석 혹은 해석이라고 폭 넓게 전제한다.

게 파악할 수 있게 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문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서 원전이 바로 그것이다. 다양한 본문비평적인 작업을 거쳐서 번역해야 할 원전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확정된 원전을 정확한 문법지식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나 원천 언어(그리스어)와 수용 언어(우리말) 사이에는 언어구조와 같은 형식적인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의적인 차원에서도 쉽게 다리를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간격이 크다. 이 커다란 차이를 뛰어넘어서 의미의 전달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것이 번역이다.⁶⁾ 그러므로 번역은 단순히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형식이 일치되게 옮기는 작업(“형식적인 동등성”)이 아니다. 번역 이전에 이미 해석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석된 본문이 번역의 대상이다.

번역의 대상이 되는 원전의 이해 자체도 어렵지만 설사 그것을 이해했다고 해도, 수용자들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의와 구조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성서의 번역은 독자들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서의 번역은 원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의미 파악을 전제하고, 그 의미를 독자들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게 옮기는 작업이다. 시간과 공간, 문화와 사상의 간격을 넘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⁷⁾

이런 번역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소위 직역(“형식적인 동등성”)보다는 의역(“역동적/기능적 동등성”)이 번역의 의도에 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석적인 개입이 전혀 없거나 혹은 최소화하더라도 독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형식적인 동등성”의 직역이 오히려 최선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은 읽는 사람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가능하면 그 객관성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 성서 번역의 일차적인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하는 원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줄 책무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번역은 해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번역은 원문의 내용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

6)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문헌들에 대해서는 왕대일, “번역비평의 이론과 실제: 프롤레고메나” 41-67;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62-78 참조.

7) W. Klaiber, “(Bibel-)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3 (2008), 468-492는 성서의 번역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한다. 이 논문에 대해서는 조정철, “골로새서 1:24와 2:18의 번역과 해석에 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3(2008:10), 122-145 참조.

는 것인 반면에, 해석은 원문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석은 해석자의 자의성에 맡겨질 위험이 있지만, 번역자는 원문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 번역의 차이를 엄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해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번역은 존재할 수 없다. “형식적인 동등성”의 직역이든 “내용 동등성”의 의역이든, 모든 번역은 해석의 산물이다. 직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역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며, 판단과 선택은 신학적인 행위이고, 그러므로 해석의 행위이다. 또한 직역이든 의역이든 그 결정은 본문의 상황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어느 번역의 원칙 하나를 시종일관 고수할 수 있는 번역은 불가능하다. 의역이든 직역이든 모든 번역은 주석이나 해석과 마찬가지로 원천언어의 문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법에 근거하고, 크고 작은 문맥에 합당하게 원전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언어의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번역이 지향하는 목적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번역을 읽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여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3. 몇 가지 번역의 사례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우리말 번역들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번역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런 번역의 과정에서 어떤 해석이 전제되거나 관여하고 있는지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3.1. 시적인 단락이나 문장의 번역

신약성서 문헌들 중에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만큼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가진 문헌도 드물다. 더구나 이런 문장들이 시적인 표현으로 된 경우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9-20; 에베소서 1:3-14; 2:14-18; 3:14-19; 4:11-16 등은 그리스어 원전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골로새서 1:15-20과 에베소서 1:3-14; 2:14-18 등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표현이 시적이다. 원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시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내서 번역하는 것은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다. Nestle-Aland 27판의 그리스어 성서는 빌립보서 2:6-11처럼 골로새서 1:15-18을 한 편의 시 혹은 찬송가로서 분

명하게 구분하는 편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 성서들은 이 본문들을 서술문 형식으로만 번역한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언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아쉬움과 희망을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3.2. 문맥이나 문장 안에서 특정한 표현의 연결을 확정해야 하는 번역

1) 에베소서의 서두에 나오는 축복문 가운데 1:4의 마지막에 나오는 전치사 표현 “사랑 안에서”(ἐν ἀγάπῃ)를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⁸⁾

καθὼς ἐξελέξατο ἡμᾶς ἐν αὐτῷ πρ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εἶναι ἡμᾶς ἁγίους καὶ ἀμώμους κατενώπιον αὐτοῦ **ἐν ἀγάπῃ**

『표준개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개역개정』: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공동개정』: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개역개정』 성서처럼 4하반절로 연결시킴으로써 우리의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4상반절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택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표준개정』 성서는 아예 동사형으로 바꾸어 번역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를 아예 5절로 넘겨서 하나님의 예정과 연결하는 것이다. 『개역개정』 성서의 난외주가 세 번째 가능성을 말한다. 첫 번째 연결은 우리의 윤리적 행동과 관계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말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공동개정』은 원문에 없는 “당신의”를 첨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⁹⁾ 어느 가

8)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서들은 대한성서공회의 CD-Rom 2.0에 수록된 것을 사용하며 약자는 「성경원문연구」 ‘투고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성서들은 별도로 표기할 것이다.

9) 영어 번역 성서들도 각기 상이하고 애매한 연결과 번역을 하고 있다. KJV와 ASV는 판단 유보의 직역, CEV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번역, TEV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번역, NIV와 독일어 Lutherbibel은 5절로 연결하는 번역을 한다.

능성을 선택할 것인지는 역시 신학적인 판단과 해석의 문제이다.

2) 창세 이전의 선택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에베소서 1:5의 “εις αὐτόν”를 어디로 연결해서 이해하고 번역해야 할 것인가?

προορίσας ἡμᾶς εἰς υἰοθεσίαν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εις αὐτόν, κατὰ τὴν εὐδοκίαν τοῦ θελήματος αὐτοῦ,

『표준개정』: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개역개정』: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공동개정』: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역: 그 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미리 정하셨는데, 그것은 그 분이 바라는 뜻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서들이 보여주듯이, εις αὐτόν을 어디로 연결해서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는 쉽지 않다. 대체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번역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혹은 “자기/당신의”로 번역될 수 있는가? 전치사 εις와 대격 αὐτόν의 결합을 소유격 “하나님의”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당한가? 문법적으로는 목적을 말하는 전치사 표현이다. 그러므로 슈낙켄부르크처럼 εις αὐτόν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6절의 εις ἔπαινον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¹⁰⁾ 그러므로 εις αὐτόν “하나님의”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를 위하여”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신 목적을 말한다. “그를 위하여”는 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를 축약해서 반복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는 뜻이다.¹¹⁾

10) R. Schnackenburg, *Der Brief an die Epheser*, Zürich u.a. 1982, 53.

11) H. Schlier, *Der Brief an die Epheser*. 54; J. 그닐카(Gnilka), 『에페소서』, 강원돈 역(천안: 한국 신학연구소, 1989), 137, 각주 12는 εις αὐτόν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번역하려고 한다. 영어 번역 중에서 ASV “unto himself”; KJV “to himself”를 참조.

3) 에베소서 1:8의 우리말 번역은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7b κατὰ τὸ πλοῦτος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 8 ἧς ἐπερίσσευσεν εἰς ἡμᾶς,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

『표준개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서,

『개역개정』: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공동개정』: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사역: 그 분은 은혜를 우리 안으로 넘치게 부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함 속에서...

8절 말미에 있는 전치사 표현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를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 우리말 번역 성서들은 이 전치사 표현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행위의 목적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그리스어 원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목적은 관계대명사 속격(ἧς)으로 나와 있고,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7절 말미에 나오며, 이것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명백한 오역이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7절 말미에 나오는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그의 은혜)이다. 원래는 관계대명사 대격(ἣν)이 와야 하겠지만, 7절의 “은혜”가 속격이기 때문에 그 선행사에 동화하려고 속격 관계대명사로 변환된 것이다. 7-8절을 묶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셨다는 말이 된다.

ἐν πάσῃ σοφίᾳ καὶ φρονήσῃ는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8상반절(“은혜를 넘치게 부으셨다”)과 9절(“그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이 8상반절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9절로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8상반절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지혜와 총명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때 지혜와 총명은 은혜를 풍성히 받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다.¹²⁾ 반대로 9절로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총명 안에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다.¹³⁾ 구약성서와 유대교의 지혜문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에베소서 1:17; 3:10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전 2-3장과 롬 11:33도 참조)는 점에

12) R. Schnackenburg, *Der Brief an die Epheser*, Zürich u.a. 1982, 55. 영어 번역들 중에서도 ASV, NIV, KJV 그리고 독일어 Lutherbibel은 분명하게 7-8절과 연결한다.

13) 그닐카, 『에베소서』, 강원동 역(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9), 142. TEV는 9절로 연결해서 번역한다.

서 9절로 연결해서 번역하는 것은 타당성을 얻는다. 우리말 성서들도 이 표현을 9절로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대상을 “은혜”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다.

3.3. 특정한 표현을 생략하거나 보충해서 번역하는 경우

1) “그러나”(ὁὐ)를 번역하지 않은 경우

그리스어의 불변화사인 ὁὐ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고, 때로는 번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¹⁴⁾ 그러나 문맥 안에서 앞과 뒤를 분명하게 대조하려는 경우에는 번역을 해야 한다. 번역이 원천언어의 내용과 분위기까지 가능하면 그대로 전해야 할 사명을 갖는다면 “그러나”는 번역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2:4는 문맥상 2:1-3이 말한 성도들의 저주받은 과거에 대조되는 현재의 복된 상황을 말한다. 1-3절에서 지금까지 성도들의 어두웠던 과거 상황-이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상황이다. 이 침울하게 회상되었다면, 4절은 “그러나”를 통해서 어둠으로부터 빛에로의 위대한 전환을 말한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3:21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전환과 같은 것이다. 로마서는 3:20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의 대가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임을 무섭게 선언하고 나서 3:21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함으로써 인류 역사와 운명의 가장 위대한 변화를 말한다. 바로 것처럼 에베소서 2:4도 역시 1-3절의 음울한 회상으로부터 밝고 찬란하게 변화된 성도들의 현재를 말한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서는 에베소서 2:4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3:21에서도 ὁὐ (그러나)를 번역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¹⁵⁾

2) “그러므로”의 경우

근거를 제시하거나 결론을 이끌어내고 혹은 보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불변화사가 바로 γάρ이고, 뒤에 문장이 올 경우에는 접속사 ὅτι가 사용되기도 한다.

에베소서 2:10은 2:4-9가 말하고 있는 구원 사건의 결과를 말한다. 4-9절에서

14)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 447;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F. W. Danker, 3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13.

15) 『표준개정』과 『공동개정』은 “그러나”를 번역한다.

서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10절은 그 구원으로부터 나온 결론과 목표를 말한다. 그리스어 본문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γάρ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써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뚜렷한 결과를 가져왔고 또 분명한 목표를 지향한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죽었던 독자들을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말 번역 성서들은 “그러므로”를 번역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3) 그리스어 본문에 없는 말의 첨가, 과장 혹은 삭제하는 번역

a) 우리말 『개역개정』과 『표준개정』 성서는 에베소서 3:1에서 바울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하는데, “일로”는 번역자의 첨가이다. 반면에 『공동개정』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바울이라고 한다. 의역을 목표로 하는 『공동개정』이 오히려 여기서는 직역을 하고 있다. 이는 ὁ δέσμιος τοῦ Χριστοῦ [Ἰησοῦ]의 번역이다. 우리말 『개역개정』과 『표준개정』 성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를 첨가하는 것은 의미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일로”를 첨가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희석되고, 오히려 업무적인 관계가 강조되어 버린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 에베소서에는 예수와 바울 사이의 뻔 수 없는 인격적인 연관성을 강조한다.¹⁶⁾

b) 저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맥락 속에 있는 3:18-19를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표현을 첨가하거나 혹은 번역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가 일어난다.

ἵνα ἐξισχύσητε καταλαβέσθαι σὺν πᾶσιν τοῖς ἁγίοις τί τὸ πλάτος καὶ μῆκος καὶ ὕψος καὶ βάθος,

『표준개정』: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개역개정』: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공동개정』: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16) 영어 번역들이나 독일어 번역 성서들에서 “일로”가 첨가된 것들은 거의 찾을 수 없다.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사역: 그래서 여러분이 너비와 길이와 높음과 깊음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기를

우리말 『개역개정』 성서는 그리스어 본문의 18절과 19절의 순서를 바꾸어 번역하며 19절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당겨 18절에 번역한다(『표준개정』도 그렇다).¹⁷⁾ 그것은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의 내용이 그리스어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개역개정』과 『표준개정』은 그 대상을 19절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고 τί를 의문사가 아닌 부사로 번역한다(“얼마나”). 그러므로 『개역개정』/『표준개정』 성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식으로 번역한다. 반면에 『공동개정』은 “하느님의 신비”를, 그리고 천주교 200주년 성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첨가하여 번역하지만, 이것들은 그리스어 본문 맥락에는 전혀 없는 것들이다.¹⁸⁾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다.¹⁹⁾ 그러나 순전히 문법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19하반절의 마지막에 있는 속격 표현 τοῦ Χριστοῦ(그리스도의)가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이전에 계획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포되고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3:2, 9 참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것인지를 이방인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충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뜻/ 비밀”이어야 한다.

c) 골로새서 2:14-15의 번역에는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4 ἐξαλείψας τὸ καθ' ἡμῶν χειρόγραφον τοῖς δόγμασι
 ὃ ἦν ἐπεναντίον ἡμῶν,
 καὶ αὐτὸ ἦρκεν ἐκ τοῦ μέσου

17) 영어의 TEV, NIV 등이 그렇게 한다.

18) 욕기 11:7-9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라는 표현이 우주적인 신비를 말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런 보충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19) 다양한 해석의 모델에 대해서는 F. Mußner, *Christus, das All und die Kirche*, Studien zur Theologie des Epheserbriefes (Trier 1968), 71-72 참조.

20) F. Mußner, *Der Brief an die Epheser*, 112; *Christus, das All und die Kirche*, 74.

προσηλώσας αὐτὸ τῷ σταυρῷ·

15 ... θριαμβεύσας αὐτοὺς ἐν αὐτῷ.

『표준개정』: 1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15 ...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개역개정』: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공동개정』: 14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이 들어 있는 우리의 빛 문서를 무효화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15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사역: 14 그는 우리를 반대하여 고발하는 조항들로 된 증서를 없애버렸는데, 그것은 우리를 적대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것을 중간에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15 ... 그는 그 안에서 그들에 대한 승리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14절의 ἐκ τοῦ μέσου를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아예 번역하지 않거나 『표준개정』은 “우리 가운데서”로 의역한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중간으로부터”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고 고발하는 증서를 “중간으로부터” 지워버리셨다. 이 표현은 고발하는 증서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 상호 사이의 중간을 가로막고 서 있는 증서로서 그 관계를 파괴하고 적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마치 에베소서 2:14에서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과 유사하다. 하나님은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증서를 없애버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인간 상호간에 화해와 평화가 가능하게 했다. 골로새서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승배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맞서 기록된 서신임을 고려하면,²¹⁾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있다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간으로부터”라는 표현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ἐκ τοῦ μέσου를 번역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고, “우리 가운데서”라는 『표준개정』의 의역도 그의 의미를 수평적 차원으로만 제한하는 불충분한 번역이다.²²⁾

21) 이에 대해서는 조정철, “골로새서에 나타난 ‘철학’과 ‘바울의 복음’”, 『신학과 세계』 61(2008년 봄), 34-57 참조.

14절의 끝에 나오는 τῷ σταυρῷ와 15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ἐν αὐτῷ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우리말 성서들은 τῷ σταυρῷ와 그 동사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번역하지만, 『개역개정』 성서만은 이 표현을 15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 문제는 15절의 ἐν αὐτῷ를 『표준개정』은 “그리스도의”로,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십자가로”로 번역한다는 것이다.²³⁾ 그럼으로써 ἐν αὐτῷ를 14절의 σταυρός를 받는 표현으로 이해한다.²⁴⁾ 과연 이런 연결이 정당한 것인가? 거짓 교사들과의 논쟁에서 핵심 단락인 2:6-15에 ἐν αὐτῷ와 그 상당어가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²⁵⁾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지를 이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한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이며, 이것을 “십자가로” 제한해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차라리 『표준개정』처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 문맥에서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²⁶⁾

3.4. 명시적으로 해석하는 번역²⁷⁾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도 번역이 얼마나 주석이나 해석에 좌우되고 있는지를

22) KJV은 “out of the way”라고 이 표현을 번역한다.

23) 영어 번역들 중에서는 CEV는 이 표현을 번역하지 않고, TEV(“on that cross”)와 NIV(“by the cross”)는 십자가로 연결하고, ASV와 KJV(“in it”)은 직역하지만, it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십자가로 연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직역을 하려면 “in him”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한다.

24) 우리말 성서들은 에베소서 2:16에서도 ἐν αὐτῷ를 “십자가로”로 바꾸어 번역하는데, 에베소서 2:14-18의 문맥상 이런 번역은 가능하다. 골로새서 1:14: 이 구절은 13절이 말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그 안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속량 곧 죄의 용서라고 말한다. 골로새서 1:19 우리말 『개역개정』 성서는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명백히 오역이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개역개정』 성서가 19-20절을 이유 문장으로 번역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25) 6, 7, 9, 10, 15절은 ἐν αὐτῷ, 11절과 12절은 ἐν ᾧ를 사용한다. 13절의 οὖν αὐτῷ도 참조.

26) 우리말 『개역개정』 성서가 “그 안에서”를 “십자가로”로 번역한 것은 과거 학자들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Calvin, Abbott, Haupt 등).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거의 모든 주석학자들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한다(Schweizer, Gnlika, Ernst, Lohse, Dibelius-Greeven, Lohmeyer, Pokorny 등의 주석서).

27)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가 될 수 있는 골로새서 1:24와 2:18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앞에서(각주 7) 언급한 필자의 논문, “골로새서 1:24와 2:18의 번역과 해석에 관한 고찰” 참조.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음 몇 개의 사례들은 보다 더 분명하게 해석이 번역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1) 앞의 골로새서 1:15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표현 “그 안에서”(ἐν αὐτῷ)는 에베소서 1:4에서도 중요한 번역과 해석의 문제를 야기한다

καθὼς ἐξελέξατο ἡμᾶς ἐν αὐτῷ πρ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εἶναι ἡμᾶς ἁγίους καὶ ἀμώμους κατενώπιον αὐτοῦ ἐν ἀγάπῃ,

『표준개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개역개정』: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공동개정』: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난 장소가 ἐν αὐτῷ이다. 이 전치사 표현은 『표준개정』과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로 번역되어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되고, 『공동개정』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로 번역되면서 아예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결되어 버린다. 왜 이런 번역이 일어났을까? 바로 해석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공동개정』은 그리스도의 선재(先在)라는 교리를 피하려고 그런 연결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지만,²⁸⁾ 너무 지나친 본문의 변경이다. 반면에 『개역개정』과 『표준개정』은 “그 안에”를 “그리스도 안에”로 바꾸어 번역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요, 그 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석적으로 강조한다.

2) 에베소서 3:11에서도 우리는 특정한 교리적인 해석과 연관된 번역의 사례를 볼 수 있다.

κατὰ πρόθεσιν τῶν αἰώνων ἣν ἐποίησεν ἐν τῷ Χριστῷ Ἰησοῦ τῷ κυρίῳ

28) F, G 등의 사본들은 아예 “그 자신 안에서”로 본문을 바꾸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ἡμῶν,

『표준개정』: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개역개정』: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공동개정』: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세워 이루시려고 작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문제는 ἐποίησεν이라는 동사에 있다. 우리말 번역 성서들을 보면 『표준개정』과 『개역개정』 성서가 이 동사를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공동개정』은 그 둘을 융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개정』 쪽으로 기울고 있다. 먼저 『개역개정』 성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세웠다”로 보고 있다.²⁹⁾ 더구나 “예정하신”으로 번역하는 것은 벌써 예정론이라는 교리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이 해석을 따르면, 위 1:4에서도 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 전에 계셨던 선재하신 분이요, 그 분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예정한 것이다. 그러나 1:4와는 달리 여기에는 “우리 주 예수”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우리 주 예수”라는 말은 선재하신 그리스도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주의 통치자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표현이다. 다른 하나는, 1:11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셨다”로 이해하는 것이다.³⁰⁾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곧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선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하는가? 두 가지의 해석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번역이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3) 골로새서 2:8, 20에 나오는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를 어떻게 번역하고 이해할 것인지는 매우 뜨거운 논란거리다. 번역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념의 해석이 작용한다.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산”과 동의적인 개념으로 사용

29) 그닐카, 『에페소서』와 Schlier, *Der Brief an die Epheser*이 그런 해석을 주장한다. KJV과 ASV가 이런 이해에 따라서 번역한다.

30) R. Schnackenburg, *Der Brief an die Epheser*; F. Mußner, *Der Brief an die Epheser*; M. Barth, *Ephesians*; M. Dibelius(- H. Greeven), *An die Kolosser, Epheser, an Philemon*; H. Conzelmann, *Der Brief an die Epheser* 등이 그런 해석을 주장한다. CEV, TEV, NIV, Lutherbibel 등이 그렇게 이해하는 번역을 한다.

된 이 표현은 신약성서에서는 이곳 외에는 오직 갈라디아서 4:3, 9에만 나온다. 『표준개정』은 이를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 『공동개정』은 “세속의 원리”로 번역하고, 『개역개정』 성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번역한다. 이 번역들은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를 나름대로 직역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미흡하다. 복수형 τὰ στοιχεῖα는 “기초 원리, 기초 요소들” 등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κατὰ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 καὶ οὐ κατὰ Χριστόν의 대조적인 표현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를 따르는 것”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는 인간을 지배하여 추종하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나 반대되는 실체로 나타난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의 권세에서 벗어났다(2:20). 바울이 마치 죄를 인간을 지배하고 이끄는 인격적 권세로 보는 것과 유사하게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도 그런 인격적인 권세로 나타난다. 실제로 골로새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를 그런 인격적인 권세를 가진 실체라고 주장하며 그것들을 경배하라고 가르쳤다. 서신의 저자는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를 단순히 원리나 초등학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기반이 되는 영적인 존재들”³¹⁾ 혹은 “세상의 원소 신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³²⁾

4) 골로새서 2:23의 명확한 번역이나 이해는 거의 불가능하다

ἄτινά ἐστιν λόγον μὲν ἔχοντα σοφίας ἐν ἐθελοθηρησίᾳ καὶ ταπεινοφροσύνῃ
[καὶ] ἀφειδίᾳ σώματος, οὐκ ἐν τιμῇ τινι πρὸς πλησμοῦν τῆς σαρκός.

『표준개정』: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개역개정』: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공동개정』: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31) 영어 번역 CEV가 “the powers of this world”로, Lutherbibel은 “die Mächte der Welt”로 번역한다.

32) 전경연, 『골로새서·빌레몬서』,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43(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51-257 참조.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사역: 비록 이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괴롭히는 일에는 지혜롭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번역상의 문제는 특히 23상반절(οὐκ ἐν τιμῇ τινι πρὸς πλησμονὴν τῆς σαρκός)에 있다. οὐκ ἐν τιμῇ τινι는 “어떠한 명예(혹은 가치)도 없다”로 번역된다. 문제는 이어지는 πρὸς πλησμονὴν τῆς σαρκός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이다. 특히 전치사 πρὸς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 전치사는 대격과 결합해서 “...을 위하여” 혹은 정반대로 “...에 반대하여”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치가 없는가? 혹은 육체의 욕구에 맞서기에는 가치가 없는가? 결국 다음의 세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생긴다

첫째, “육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예(가치)도 없다”로 번역하면, 23상반절과 연결해서 “비록 이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괴롭히는 일에는 지혜롭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πρὸς) 아무런 가치가 없다.”가 된다.³³⁾

둘째, “육체의 충족에 맞서는(πρὸς)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로 번역하며, 23상반절과 연결하면, “비록 이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괴롭히는 일에는 지혜롭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의 충족에 맞서는 데는(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가 된다.³⁴⁾

셋째, “어떠한 가치도 없고, 육체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πρὸς) 것이다”로 번역하며 23상반절과 연결하면, “비록 이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단련하는 일에는 지혜롭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으나, 육체를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다른 아무 가치도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³⁵⁾

33) 이런 해석은 고대교회의 교부들에게서 흔히 찾을 수 있다. B. Hanssler, “Zur Satzkonstruktion und Aussage in Kol. 2,23”, 143-148. KJV “not in any honour to the satisfying of the flesh”.

34) 우리말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개정』은 모두 이렇게 번역한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도 그렇다. ASV [but are] not of any value against the indulgence of the flesh. NIV but they lack any value in restraining sensual indulgence. TEV but they have no real value in controlling physical passions. CEV But they don't really have any power over our desires. 전경연: “육의 포만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35) 독일어 번역 성서들이 이런 번역을 택한다. Lutherbibel: “sie sind aber nichts wert und befriedigen nur das Fleisch”. Einheitbibel: “Doch es bringt keine Ehre ein, sondern befriedigt nur die irdische Eitelkeit”. 슈바이처: “전혀 무가치하며 다만 육체를 만족시킬 뿐입니다.” Gnllka: “keinem zur Ehre, ist nur Übersättigung des Fleisches.”

23절은 거짓 교사들의 논란을 마무리하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마무리 구절에서 저자가 단순히 육체의 욕망에 맞서는데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 교사들을 소극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비판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골로새서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엄히 비판하고 부정하는 단락을 마무리하는 23절의 맥락에서는 세 번째 번역이 가장 적절하다.

3.5. 동일한 단어/표현을 각기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

1)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뜻에 관해서 말하는 에베소서 1:10에 사용된 οἰκονομία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할 것인가? 그리스어 οἰκονομία를 바르게 번역을 하려면 이 그리스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신약성서에 9회 사용된 이 명사를 『개역개정』은 “직무”나 “직분”(눅 16:2, 3, 4; 골 1:25) 혹은 “사명”(고전 9:17)으로 번역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3회 모두 “경륜”으로 번역한다(1:10; 3:2, 9; 딤후 1:4도 참조). 『표준개정』은 1:10에서는 “경륜”으로, 3:2에서는 “직분”으로, 3:9에서는 “경륜”으로 번역하고, 『공동개정』은 1:10에서는 “계획”으로, 3:2에서는 “일꾼”으로, 3:9에서는 다시 “계획”으로 번역한다.³⁶⁾ 고대 헬라-로마 세계의 가정 경영에서 유래된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비밀과 깊은 연관 속에서 사용된다. 10절의 문맥에서 이 단어는 “실행” 혹은 “실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³⁷⁾

2) 골로새서 1:16, 20에서는 전치사와 결합된 인칭대명사의 번역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16 ὅτι ἐν αὐτῷ ἐκτίσθη τὰ πάντα … τὰ πάντα δι' αὐτοῦ καὶ εἰς αὐτὸν

36) 이 단어의 번역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는 영어 번역 성서들도 보여준다. 1:10에서 CEV “do”; TEV “complete”; NIV “to be put into effect”; ASV “unto a dispensation”; KJV “in the dispensation”, Lutherbibel “ausfüllen”; Einheitbibel “beschlossen“ 등으로 번역하고, 3:2에서는 CEV 번역하지 않음; TEV “this work”; NIV “the administration”; ASV the dispensation; KJV the dispensation; Lutherbibel과 Einheitbibel “Amt” 등으로, 3:9에서는 CEV와 TEV “plan”; NIV “administration”; ASV “dispensation”; KJV “fellowship”; Lutherbibel “Ratschluß”; Einheitbibel “Wirklichkeit” 등으로 번역한다.

37) O. Michel, ThWNT V, 154-155 참조. CEV, TEV, NIV, Lutherbibel 등도 “실행”의 의미로 번역한다.

ἐκτισται·

20 καὶ δι' αὐτοῦ ἀποκαταλλάξει τὰ πάντα εἰς αὐτόν, εἰρηνοποιήσας διὰ τοῦ αἵματος τοῦ σταυροῦ αὐτοῦ, [δι' αὐτοῦ] …

『표준개정』: 16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20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개역개정』: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공동개정』: 16 … 만물,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20 그리스도를 내세워 …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20절에서 우리말 번역 성서들은 δι' αὐτοῦ를 “그로 말미암아”로 번역하는 반면에 εἰς αὐτόν을 “자기와” 혹은 “당신과”로 번역한다.³⁸⁾ 그러나 16하반절에서는 동일한 εἰς αὐτόν을 “그를 위하여”로 번역한다. 왜 동일한 표현을 각기 다르게 번역하는가? 우리말 성서들이 말하는 “자기” 혹은 “당신”은 하나님을 지칭한다. 우리말 성서들에 의하면,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러한 화해사상은 고린도후서 5:19에 나오는 바울의 화해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므로 20절에서 “자기와”로 번역하는 성서들은 바울의 신학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이해하고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화해하게 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는 에베소서 1:10처럼 εἰς αὐτόν을 말하지 않고, καταλλάξαντος ἑαυτῷ이라는 재귀대명사를 사용한다(고후 5:18, 19). δι' αὐτοῦ καὶ εἰς αὐτόν이 16절에서도 그대로 나오며, 그곳에서는 εἰς αὐτόν을 “그를 위하여”로 번역한다면, 이곳 20절에서도 16절에서처럼 “그를 위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상호 화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만물과 하나님의 화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지는 20하반절도 그런 번역과 해석을 지지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만드

38) 거의 모든 영어 번역들도 16절과 20절의 εἰς αὐτόν을 우리말 성서들처럼 각기 다르게 번역한다 (for him; to himself). 독일어 루터성서도 마찬가지다(zu ihm; mit sich).

셨기 때문에, 만물이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16절은 동일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위한 만물의 창조를 말한다면, 20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위한 만물의 화해를 말한다.³⁹⁾ 그러므로 16절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의 매개자이면서 목적으로, 20절에서는 화해의 매개자이면서 목표로 찬양되고 있다. 골로새서 1:15-20의 그리스도 송가는 하나님과 만물의 화해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화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노래하는 그리스도 송가이다.

4. 나가는 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역이나 직역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그리스어 문법의 지식에 근거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본문을 이해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단순한 문법의 지식만으로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없다. 문법은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문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문맥을 살펴야 하고, 더 넓게는 문장이나 단락이 서 있는 문헌 전체의 신학적인 시각 속에서 번역작업이 일어나야 한다. 더 나아가서 특정한 개념이나 표현은 성서가 기록된 시대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시대가 이해하는 개념 그 자체가 다시 긴 역사를 가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번역을 위한 씨름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인지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길고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지난한 작업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번역과 주석/해석은 결코 별개의 작업일 수 없다. 번역이 최고의 주석/해석이고, 주석/해석은 번역의 전제이며 동시에 번역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주석/해석이 다양한 만큼 번역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주요어>(Keywords)

성서 번역, 주석, 골로새서, 에베소서, 번역의 은사.

Bible Translation, Exegesis of the Bible, Colossians, Ephesians, gift of the translation.

39) Einheitbibel은 “Alles im Himmel und auf Erden wollte er zu Christus führen”으로 번역한다.

<참고문헌>(References)

- 그닐카(Gnilka), J., 『에페소서』, 국제성서주석(강원돈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9.
- 슈바이처(Schweizer), E., 『골로사이서』, 국제성서주석 40,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3.
- 오브라이언(O'Brien), P. T., 『골로새서 · 빌레몬서』, WBC 성경주석,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8.
- 왕대일, “번역비평의 이론과 실제-프로레고메나” 「성경원문연구」, 제12호(2003년 2월).
-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제16호(2005년 4월).
- 전경연, 『골로새서 · 빌레몬서』, 대한기독교서회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4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조경철, “골로새서 1:24와 2:18의 번역과 해석에 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3호(2008년 10월).
- 조경철, “골로새서에 나타난 '철학'과 '바울의 복음'”, 「신학과 세계」 61(2008년 봄).
- 조경철, 『설교자를 위한 에베소서 주석』,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 Barth, M., *Ephesians 2Bde.* (The Anchor Bible 34/34A),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74.
- Baue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 W. Danker, rev. ed., 3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1984¹⁶.
- Conzelmann, H., *Der Brief an die Epheser*(NTD 8), Göttingen, Zürich: Vandenhoeck u. Ruprecht, 1976.
- Dibelius, M(- Greeven, H.), *An die Kolosser, Epheser, an Philemon* (HNT 12), Tübingen, 1953³.
- Gnilka, J., *Der Kolosserbrief*, HthKNT X 1, Freiburg, Basel, Wien: Herder, 1980.
- Hanssler, B., “Zur Satzkonstruktion und Aussage in Kol. 2,23”, H. Feld/J. Nolte (hg.), *Wort Gottes in der Zeit*, FS K. H. Schelkle, Düsseldorf, 1973.

- Klaiber, W., "(Bibel-)Übersetzen - eine unmögliche Aufgabe?", *Theologische Literaturzeitung* 133 (2008), 468-492.
- Lindemann, A., *Der Kolosserbrief*, ZBK.NT 10,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3
- Lohse, E., *Die Briefe an die Kolosser und an Philemon* (KEK IX/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Müller, P., *Anfänge der Paulusschule*. Dargestellt am zweiten Thessalonicherbrief und am Kolosserbrief, Zürich, 1988.
- Mußner, F., *Christus, das All und die Kirche*, Studien zur Theologie des Epheserbriefes, Trier, 1968.
- Mußner, F., *Der Brief an die Epheser* (ÖTK 10), Gütersloh u.a., 1982.
-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on*, Leiden: Brill Academic Press, 1964.
- Pokorny, P., *Der Brief des Paulus an die Kolosser* (ThKNT),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7.
- Schlier, H., *Der Brief an die Epheser*, Ein Kommentar, Düsseldorf, 1971⁷.
- Schnackenburg, R., *Der Brief an die Epheser*(EKK X), Zürich u.a., 1982,
- Standhartinger, A., *Stud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und Intention des Kolosserbriefs*, Leiden: Brill Academic Press, 1999.
- Weder, H., *Neutestamentliche Hermeneutik*,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6².

<Abstract>

Translation and Exegesis of the Bible in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the Ephesians

Prof. Kyong Chul Cho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importance of the interaction of exegesis and translation of the Bible, especially highlighting some examples in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the Ephesians. The Apostle Paul, in 1 Cor 12 and 14, introduces the spiritual gift of the translation (ἑρμηνεία) in the explanations of the prophecy and strange tongues. Without the translation of strange tongues, they are not understood in the church, therefore people are asked not to speak them open in the church. In this case,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to the church is necessary as far as the strange tongues are spoken. Without the translation of the strange tongues, it is very hard for people to understand God and bear any spiritual fruits in their mind, as Paul emphasizes in 1 Cor 14:14.

But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s very difficult and complex task. Translation must be based on the good knowledge of the lexical and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source language. For the translator, understanding the source text is the prime goal in Biblical exegesis that is a critical explan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xegesis also leads to discover relevance of translation.

We can find some cases in the Letters to the Colossians and to the Ephesians, for example, expressions written in the context of a specific type relation, addition or omission of some characters in exegetic expressions, impossible translation without clear exegetic explanation, and the same partial translation with a different set of words.

We may notify above-mentioned examples in not only Korean Translation, but also English and German Transl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exegesis is not only essential in the translation of Bible, but also critical in the analysis of the Bible.